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감수성 기르기

1. 교육대상 : 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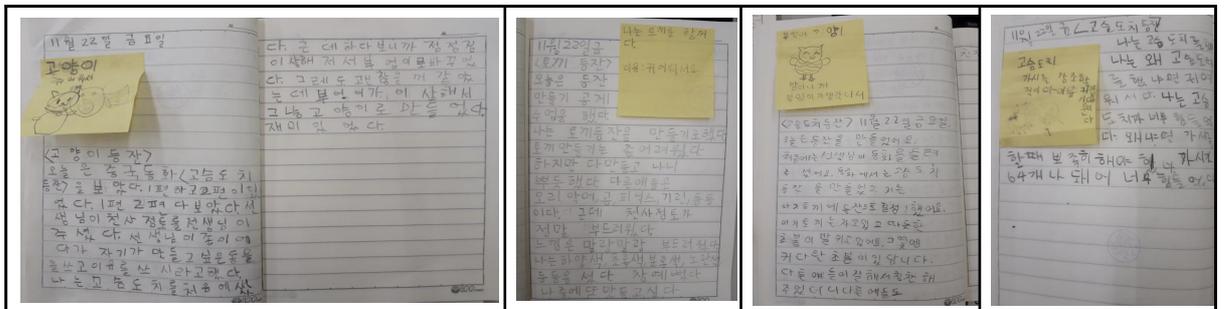
2. 교육내용

동화	‘고슴도치 등잔’(중국)	교과목, 단원명	통합 겨울 1. 두근두근 세계 여행 국어 9. 주요 내용을 찾아오
주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월대보름 비교하여 이해하기		
학습목표	동화를 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까닭이 들어가게 써서 발표할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	교사용	『내 더위 사려!』, 활동지, 천사점토, LED캔들	
	학생용	필기도구, 사인펜	

단계	활동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 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명절 다섯고개 맞추기 - 한복, 겨울, 음력 1월1일, 세배, 떡국 ⇒ ‘설’입니다. - 보름달, 과일, 추수, 송편, 강강술래 ⇒ ‘추석’입니다. - 더위팔기, 부럼 깨기, 쥐불놀이, 오곡밥, 달맞이 ⇒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정월대보름’입니다. <p>◆ 학습문제 안내</p> <p>동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발표해 봅시다.</p>	<p>전체활동</p> <p>◎다섯고개는 어려운 것부터 쉬운 순서로 낸다.</p> <p>★ppt</p>
전개	<p>◆ 동화 보고 서로의 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슴도치 등잔’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 무엇으로 등잔을 만들었나요? (콩가루반죽) - 무엇으로 풍년을 예측하나요? (불어난 콩을 보고) - 주인공은 왜 고슴도치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아기 고슴도치를 데려와 키우고 있어서) - 오래도록 켜진 등잔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믿었나요? (한 해 동안 건강히 지내는 것) - 대보름이 지나고 난 등잔은 어떻게 했나요? (국수를 끓여 먹는다.) ▶ 우리나라 정월대보름 풍습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 우리나라는 쥐불놀이를 하는데 중국은 등잔을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p>◆ 동물 등잔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동물 모양의 등잔을 만들지 까닭을 들어 쓰고 발표해 봅시다. 	<p>◎전체활동</p> <p>★올리볼리 그림동화 (http://ollybolly.org)</p>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 모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저는 용감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p>▶ 나의 동물 등잔을 만들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사점토로 모양을 만들고 캔들을 켜서 담는다. - 캔들을 넣을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게 한다. - 동물의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전체적인 모양이 쉽게 무너진다. - 색을 넣고 싶으면 천사점토에 원하는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 반죽한다. 	<p>개인, 전체 활동 ★활동지</p> <p>★천사점 토, LED캔 들</p>	
정리	<p>◆ 자기 성찰하기</p> <p>▶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월대보름에 하는 일들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 나만의 동물 등잔을 만들고 초를 켜서 넣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 이번 정월대보름 때 더위팔기랑 부럼 깨기 해보고 싶어요. 	<p>◎전체활동</p> <p>★『내 더위 사려!』</p>	
<p>활동 사진</p>			
	고양이 등잔	고슴도치 등잔	토끼 등잔

3. 교육 후기 : 우리 반에서는 ‘마음을 담은 글쓰기’공책을 쓰고 있어서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고 먼저 만들 동물을 생각해 보고 까닭을 쓴 후 활동한 후의 생각과 느낌을 공책에 쓰게 하였다. 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활동지는 A4 크기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가로 2단으로 나누어 A4 절반 크기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다.



4. 제언

- 가.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다양한 주제와 쉬운 내용, 3개 언어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성취기준에 따라 때로는 동기유발 자료로, 때로는 활동 자료로, 때로는 수업 후 정리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동화 속에 담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했고, 올해 2학년을 대상으로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도 동화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 더 흥미 있어 하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였다.
- 나.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우리나라와 서유럽에 치우친 문학 영역을 다양한 나라로 확장시켜 주며 재미있는 영상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고, 교사가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하다. 2학년의 통합 '두근두근 세계 여행'을 지도할 때 활용하기 참 좋은 자료이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라서 더 좋는데 이번에는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화로 중국의 '고슴도치 등잔'과 팔레스타인의 '이만과 종이연'을 선택하게 되었다.
- 다. 학생들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인지하며 편견을 갖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는 고마운 자료이다. 동화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보다 활동을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수록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선생님들께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하는 데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

- 붙임 1. 활동지

붙임1. 활동지

나만의 동물등잔 만들기

이름 ()

내가 만들고 싶은 동물등잔	
그 동물로 만들고 싶은 까닭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그려 보시오.	
활동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것과 느낀 점	